

“농촌 정착 農高학생 대학까지 학비 주고 창농자금 지원할것”

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인터뷰

농협중앙회가 내년
부터 농촌에 머물며 창
농(創農) 등을 꿈꾸는
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
게 대학까지 학비와 창
농 자금을 지원한다. 또



2020년까지 가구당 농가 소득 5000만 원
시대를 열기 위해 연리 5% 정기적금 판
매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.

김병원 농협중앙회장(사진)은 29일
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집무실
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
“농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
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환경
을 만들어야 한다”며 이 같은 계획을 공
개했다.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
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농업 관
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젊은이들이 정
착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
취지다.

농협은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
국 농고에서 농촌에 살고 싶은 희망자를
모집한 뒤 선발된 학생들이 농협대에서
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학교
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
의해 나갈 계획이다. 또 관련 예산은 농
협의 복지재단(농협재단)을 통해 마련하
기로 했다.

김 회장은 “2020년까지 농가 1가구당
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
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”고 밝혔
다. 가입 실적만큼 농업인을 위한 기금을
출연하는 적금 상품을 만들어 농민들에
게 연리 5%대 고금리를 지원하는 ‘행복
이음패키지’(가칭)를 내놓겠다는 것이다.
올 2월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에 최
대 50억 원을 연리 1%대로 지원하는 상
품도 선보였다. 또 전국 1100여 개 농협
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100여 곳은 합병
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. 김 회장은
“농협 조직 혁신으로 절감한 비용은 농민
들에게 적극 환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박성민 기자 min@donga.com

▶A10면에 관련기사

